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분석\*

: 국내 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Are Parent Education Programs in South Korea Really Effective?

: A Meta-Analytic Study Using Journal Articles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조 교 수 이 재 립\*\*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김 지 애\*\*\*

박사수료 차 동 혁

코네티컷대학교 인간발달가족학과

박사과정 이 향 희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

Assistant Professor : Lee, Jaerim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andidate : Kim, Jiae

Doctoral Candidate : Cha, Donghyuk

Dep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Univ. of Connecticut

Doctoral Student : Lee, Hyanghee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parent education programs conducted in South Korea were effective in changing in parents' behaviors, parents' internal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characteristics. We retrieved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Korea between 2006 and 2011 using keyword searches of electronic databases. A total of 41 studies were included in our meta-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 education programs had large positive effects on parents' behavioral changes and children's changes along with medium to large effects on parents' internal changes. The strengths of effect sizes varied depending upon program characteristics including children's age, the number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gender, the number of sessions, and group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ovided powerful scientific evidence for public policies and services that aim to support and empower parents by provid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

▲주요어(Key Words) :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 근거중심정책(evidence-based policymaking), 메타분석(meta-analysis),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parenting education), 프로그램 효과성(program effectiveness)

---

\*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2011)에서 발행한 연구용역보고서 『가족정책기초연구』(연구보고 2011-56, 연구책임자 옥선화, 공동연구자 장경섭, 최연실, 성미애, 진미정, 이재림, 강은영) 2장 4절의 분석틀에 2011년에 발표된 연구를 추가하여 분석

---

한 2012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공동춘계학술대회 구두 발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 저 자 : 이재림 (E-mail : jaerimlee@skku.edu)

\*\*\* 교신저자 : 김지애 (E-mail : nado0409@snu.ac.kr)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교육은 부모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부모에게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함으로써 부모역할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교육적 활동을 의미한다. 부모교육은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1980년대에 외국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한 이후 학문적, 실천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다(Cho, 2004).

부모교육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이순형 등(2010: 10)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부모 스스로 효과적인 자녀양육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자녀에게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다양한 교육활동'이라고 하였고, 신용주와 김혜수(2011)는 '부모가 부모역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전략 및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Carter (1996: 6)는 '건강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와 양육자를 지원하거나 이들의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및 자원'이라고 하였으며, '가족 체계 혹은 자녀돌봄 체계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변화 혹은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노력'(Brock, Oertwein, & Coufal, 1993: 88)이라는 협의의 정의도 있다.

이렇듯 부모교육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부모역할 혹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모교육과 유사한 용어로는 부모훈련(parent training)이 있다. 부모훈련은 '부모가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질과 소양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Kang, 2011: 111). 부모교육과 부모훈련이 엄밀한 의미에서 동의어는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전달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점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Yang & Kim, 2004).

부모교육은 가족생활을 향상시키고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한 가지 영역으로서 예방적인 성격을 띤다.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는 부정적인 자녀발달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으며, 부모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예방적 활동은 개인과 지역사회에서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Coie et al., 1993; Weissberg, Kumpfer, & Seligman, 2003). 특히 부모역할 지원과 부모의 역량강화와 같은 예방적 활동이 가족정책의 주요과제로 떠오르면서,

정책적으로 부모역할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모교육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의 전인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있어 일차적인 환경인 가족, 특히 가족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투자라는 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이기도 하다(Sung & Song, 2008). 가정관리학에서도 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역량 있는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과 자원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으며, 해외 각국에서도 부모역할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ong et al., 2009).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실천적인 방안으로 부모교육에 주목하며, 특히 현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구조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

부모교육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함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는 근거중심정책(evidence-based policymaking)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료이다. 특히 개별 연구의 결과보다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합한 메타분석의 결과가 보다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꾸준한 메타분석을 통해 부모교육과 관련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메타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현재까지 발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는 석·박사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배제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포함한 메타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본 최근의 국내 학술지 연구의 결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고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타분석이란 다수의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종합할 목적으로 개별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계적으로 통합하는 연구방법으로 '분석들의 분석(analysis of analyses)'이라는 의미에서 메타분석(meta-analysis)이라고 한다(오성삼, 2009). 메타분석을 통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효과의 강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메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평균 효과크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메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와 관련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 비교를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1-1]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 비교를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1-2]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 비교를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1-3] 자녀의 변화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 비교를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행동적 변화, 부모의 내적 변화, 자녀의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는 프로그램의 특성(자녀취학 여부, 교육인원수, 교육대상, 회기 수, 집단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가족 및 청소년 정책

부모교육은 현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족정책의 기본틀이라고 볼 수 있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년-2015년)의 대과제를 살펴보면, 대과제 2인 '자녀돌봄 지원 강화'의 두 가지 중점 추진과제 중 두 번째 추진과제인 '부모역할 지원'에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부모교육 활성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기 아동·청소년의 부모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중 청소년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도 부모교육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이복실, 2011).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해 학교,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최근 학교폭력이나 자살,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해법적인 가치로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를 예방,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에서도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근거(evidence)'가 정책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박석희, 2008),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메타분석의 결과는 부모교육의 정책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다.

### 2.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분석

해외 문헌을 고찰한 결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메타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이 이루어졌다(Cedar & Levant, 1990), 그 이후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Barlow, Coren, & Stewart-Brown, 2002)이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Reyno & McGrath, 2006), 아동학대 예방(Lundahl, Nimer, & Parsons, 2006)과 같은 구체적인 효과성 지표에 관한 메타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Holmes et al., 2010)과 같이 구체적인 성격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거나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Kaminski et al., 2008; Lundahl, Risser, & Lovejoy, 2006)도 이루어진 바 있다.

국내에서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메타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는 현재까지 4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적인 메타분석으로는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Lee and Lee(2002)의 연구와 그 이후인 2002년부터 2011년 8월 사이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Cho(2012)의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격의 메타분석으로는 장애아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석·박사 학위논문

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Cho(2004)의 연구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Choi(2009)의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이들 국내 메타분석 연구의 특징은 석·박사 학위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학술지 연구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가 좀 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학술지 연구를 배제한 결과만으로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결과를 통합하는 메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III. 연구방법

#### 1. 검색방법 및 선정기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발간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검색하였다. 검색에 활용한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L), 누리미디어(DBPIA),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원(KISS)이었으며, (1) '부모' 또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2) '교육' 또는 '훈련', (3) '프로그램'의 세 가지 검색어를 모두 포함한 연구를 검색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교육'과 함께 '훈련'도 검색어에 포함하였다. 출판 시기는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에 시행된 이후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이 실시되는 등 부모교육이 의미 있게 확대된 시기인 2006년 이후부터 검색 실시 직전인 2011년까지로 선정하였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이외에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단행본, 정부 및 기관의 연구 보고서 등 학술지 이외의 형태로 발간된 연구는 제외하였다.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취합한 연구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를 메타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집단과 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모두 사용한 연구만을 선정하였다. 둘째, 교육대상은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를 교육대상으로 한 연구를 선정하였으며, 특정한 성격의 부모(예 : 장애아 부모, 부적응행동 아동의 부모, 결혼이민자 어머니, 이혼한 부모, 저소득층 부

모 등)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이 일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아 포함하였다.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는 메타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연구(예 : 요구도 조사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내용만 개발한 연구, 문헌고찰 연구 등)와 일회성 프로그램만을 실시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성 검증을 하지 않은 연구와 통제집단을 사용하지 않은 연구도 제외하였다. 또한 메타분석에 필요한 정보(예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크기, 사후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아닌 예비부모나 자녀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와 프로그램 참가자가 한 명인 연구를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은 검색과정과 선정과정을 거쳐 총 41편의 학술지 게재 연구를 메타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구체적인 출판사항은 참고문헌 목록 중 \* 표시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분석방법

메타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41편의 연구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된 종속변수를 검토한 결과, 변수의 성격에 따라 (1) 부모의 행동적 변화, (2) 부모의 내적 변화, (3) 자녀의 변화의 세 개의 변수 군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는 양육태도(양육유형), 양육행동, 의사소통, 상호작용 등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29편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둘째, 부모의 내적 변화에는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부모유능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30편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셋째, 자녀의 변화에는 자녀의 문제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건강, 자아개념,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학습기술 등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10편이 포함되었다. 자녀의 변화는 분석 대상 연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부모의 변화를 행동적 측면과 내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과는 달리 분리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자녀의 변화는 부모가 보고한 변화와 제 3자가 보고한 변화가 모두 포함되었다.

부모의 행동적 변화, 부모의 내적 변화, 자녀의 변화의 변수군 별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평균 점수의 차이 값을 이용하여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로 Hedges' *d* 값을 계산하였다. 효과크기(effect size)는 '분석대상이 되는 선행연구의 다양한 형태의 결과들을 통합 또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통의 단위로 변환시켜 놓은 것'(오성삼,

2009: 16)인데, Hedges'  $d$  값은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경우 Cohen's  $d$  값과 함께 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Hedges'  $d$  값의 계산에 활용된 수치는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인원수였다. 효과크기가 클수록 부모와 자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부정적 성격의 변수(예 :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문제행동)는 음 또는 양의 부호를 바꾸어 코딩하였다. 이 때 평정자에 따라 코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팀의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mean group difference effect size)를 산출하였다. 효과크기의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 CI)을 사용하였는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면 효과크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메타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출판편의(publication bias) 검증을 실시하였다. 출판편의는 일반적으로 연구결과가 유의미한 연구(즉, 효과크기가 큰 연구)가 연구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연구(즉, 효과크기가 작은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판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출판된 개별 연구를 통합하는 메타분석에서도 효과크기가 작아서 출판되지 않은 연구가 분석에서 누락됨으로써 실제보다 큰 평균 효과크기가 도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출판편의라고 한다(Borenstein et al., 2009).

출판편의를 검토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표본크기와 효과크기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내는 깔대기 그림(funnel plot)이 있다(Borenstein et al., 2009). 이 때 출판편의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깔대기 그림의 점들이 대칭을 이루지 않고 특정한 부분에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표본크기가 작고 효과크기도 작은 연구가 출판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빈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Borenstein 등(2009)에 따르면 빈 공간이 출판편의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표본크기가 작은 연구는 효과크기가 크거나 작은 경향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깔대기 그림과 함께 출판편의를 검토할 때 권장되는 다른 방법은 Orwin의 안전계수(Orwin's Fail-safe  $N$ )를 점검하는 것이다. Orwin의 안전계수는 평균 효과크기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려면 출판되지 않았거나 검색되지 않은 연구가 몇 편 필요한지를 알려준다(Borenstein et al., 2009). 따라서 안전계수 값이 작으면 출판편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Cohen (1992)의 작은 효과크기의 기준인 .2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에서 계산한 효과크기가 유사한지를 검사하는 동질성 검정량  $Q$ (homogeneity  $Q$ ) 값을 도출하였다. 동질성 검정량  $Q$ 는 분석에

포함된 전체 연구가 공통의 효과크기를 가지는가를 검정(영가설 : 모든 연구의 효과크기는 동일하다)하는 값이다.  $Q$  값이 유의하다면 효과크기의 분산이 표집오차에 의한 분산보다 더 크다는 것(Hedges & Olkin, 1985), 즉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가 공통적이지 않고 상충하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의미로서,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절변수를 사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다(Chin, Lee, & Jeong, 2011). 본 연구에서도 도출한  $Q$  값이 유의하여 효과크기가 이질적인 경우에는 연구의 특징 몇 가지를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d$  값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절변수는 자녀취학 여부(미취학 vs. 취학), 교육인원수(15명 이하 vs. 16명 이상), 교육대상(어머니 vs. 부모), 프로그램 회기 수(8회기 이하 vs. 9회기 이상), 집단특성(일반집단 vs. 특수집단)이었으며, 이들 변수를 이분변수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취학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메타분석에 포함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령을 기준으로 미취학 아동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취학 아동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교육인원수를 15명 이하와 16명 이상으로 분류한 이유는 교육인원수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본 Cho(2004)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15명 이상이 참가한 프로그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 교육대상을 어머니와 부모로 분류한 것은 어머니만 참석하였거나 부모 모두가 참석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고, 아버지만 참석한 프로그램은 없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회기 수를 8회기 이하와 9회기 이상으로 구분한 것은 메타분석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회기 수의 평균이 8.97회기, 최빈값이 8회기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메타분석용 소프트웨어인 MetaWin 2(Rosenberg, Adams, & Gurevitch, 2000)를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의 특성 및 효과크기를 살펴본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1) 부모의 행동적 변화, (2) 부모의 내적 변화, (3) 자녀의 변화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별 특성 및 효과크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기에 앞서 메타분석에 포함된 총 41편 연구의 특성을 정리하고 개별 연구별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총 41편의 연구 중 자녀의 취학

Table 1. Summary and Effect Sizes of Individual Studies Included in Meta Analyses on Parent Education Programs

Study	School-age children	Participants	No. of sessions	Group characteristics	N (E/C) <sup>a</sup>	Outcome variables			Effect sizes		
						Parents' behavioral changes	Parents' internal changes	Children's changes	Parents' behavioral changes	Parents' internal changes	Children's changes
Cho & Lee (2011)	Yes & no <sup>b</sup>	Parents	8	General	14/14	Communication, interaction	Self-esteem	Children's changes	1.99	1.94	
Choe (2010)	Yes	Mothers	8	Multicultural	7/7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elf-efficacy	Problem behaviors	1.59	1.40	.09
Chun (2009)	No	Mothers	8	General	24/30	Stress coping	Knowledge, myth, and stereotypes related to children sexual abuse	Prevention concepts comprehension, knowledge, self-protection skills		1.27	.50
Han et al. (2010)	No	Mothers	15	General	63/71	Mother-child communication		Mother-child communication, self-concept	1.82		1.67
Hwang & Suh (2007)	Yes	Parents	12	Divorced	33/52	Parent-child relationship	Psychological change after divorce, overcoming realities, understandings of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88	.67	
Hwang (2009)	No	Mothers	8	General	13/13	Parenting attitudes	Self-concept		.64	.79	
Jang (2011)	Yes	Parents	7	General	74/63	Parenting style, control for game-use, attention to game-use	Parenting self-esteem		.19	-.05	
Jang & Yu (2008)	No	Mothers	8	General	16/20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1.21	
Jeong & Shin (2011)	Yes	Mothers	8	General	25/25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37	.39	.26
Jeong et al. (2010)	No	Mothers	10	General	54/53		Parenting stress		.42	.24	

Table 1. continued

Study	School-age children	Participants	No. of sessions	Group characteristics	N (E/C) <sup>a</sup>	Outcome variables				Effect sizes	
						Parents' behavioral changes	Parents' internal changes	Children's changes	Parents' behavioral changes	Parents' internal changes	Children's changes
Jeong & Lee (2010)	No	Mothers	10	General	9/9	Sympathy ability		Problem behaviors	3.29		1.83
Jeong & You (2011)	Yes	Mothers	9	Children with school maladjustment problems	16/16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go-state, self-esteem		.64	.84	
Jo & Sung (2011)	Yes	Mothers	10	Multicultural	12/12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04	.55	
Kang (2011)	Yes	Parents	8	General	32/32	Communication skills, family adaptability, family relations			.85		
Kim (2007)	Yes	Mothers	12	General	18/18	Parenting attitudes, parent-child communication			.29		
Kim (2006)	Yes	Mothers	10	Children with attention problems	14/15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stress		2.57	3.47	
Kim & Chung (2006)	No	Mothers	10	General	26/25	Behaviors in mother-child interacti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78	.97	
Kim & Shin (2010)	No	Mothers	-	Premature infants	17/15		Parenting stress, care confidence	Health problems		1.28	.19
Kim & Chung (2007)	No	Mothers	8	General	39/35		Creative problem solving	Creative thinking skills, creative problem solving		.99	.95
Kim et al. (2008)	Yes	Mothers	12	Children with disabilities	12/12		Self-encouragement-dis courage, parenting stress			2.05	

Table 1. continued

Study	School-age children	Participants	No. of sessions	Group characteristics	N (E/C) <sup>a</sup>	Outcome variables			Effect sizes	
						Parents' behavioral changes	Parents' internal changes	Children's changes	Parents' behavioral changes	Parents' internal changes
Kim & Kim (2011)	No	Mothers	12	Multicultural	5/5	Language behaviors		Correctness of expressive vocabulary	1.01	2.15
Kim & Park (2011)	No	Mothers	8	General	27/20	Interaction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pleasure, parenting stress		1.36	.20
Koo et al. (2009)	Yes & no <sup>b</sup>	Mothers	3	Children undergoing cardiac surgery	18/18	Coping behavior, knowledge			2.57	
Kwon & Kwon (2007)	No	Mothers	4	Premature infants	16/14		Maternal role confidence, parenting stress			.18
Kwon & Yu (2007)	Yes	Mothers	10	General	8/21			Study skills		1.24
Lee (2007)	Yes	Mothers	10	General	16/16	Parent-child interaction	Mental health		2.23	.85
Lee et al. (2007)	Unknown	Parents	10	General	15/15	Parenting attitudes, parent-child communication			1.46	
Lee et al. (2010)	No	Mothers	-	Premature infants	24/25		Maternal confidence, anxiety			.84
Lee (2011)	Yes & no <sup>b</sup>	Mothers	8	General	10/10	Parenting attitudes			1.67	
Lee & Kim (2010)	Yes	Parents	4	Children with ADHD	8/9		Parenting efficacy, knowledge of ADHD			1.09
Lee & Park (2010)	Yes	Mothers	8	General	15/15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knowledge		.17	.34



Table 1. continued

Study	School-age children	Participants	No. of sessions	Group characteristics	N (E/C) <sup>a</sup>	Outcome variables			Effect sizes	
						Parents' behavioral changes	Parents' internal changes	Children's changes	Parents' behavioral changes	Parents' internal changes
Lee & Kim (2009)	Yes	Mothers	11	General	10/10	Communication/discipline	Christian world view, view of human nature	Children's changes	1.22	1.31
Lee & Jeoung (2006)	No	Mothers	12	General	66/79		Parenting efficacy			.16
Park, H.-M. (2006)	No	Mothers	12	General	30/30	Parenting attitudes			2.45	
Park, J.-O. (2006)	No	Mothers	7	General	11/16		Parenting stress	Infant behavior		.57
Park (2007)	No	Mothers	12	General	14/14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1.00
Ryu (2009)	Yes	Mothers	5	General	13/13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16	.75
Shin & Won (2009)	Yes	Mothers	6	General	28/30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53	.54
Son et al. (2007)	Yes	Mothers	8	General	10/1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1.97	
Suh & Lee (2011)	Yes	Mothers	12	General	10/10	Parent-child interaction	Adult attachment, self-esteem,		1.49	1.03
Yang et al. (2010)	No	Parents	7	Low-income	31/29	Parent-child interaction, regulati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31	.20

Notes. <sup>a</sup>The first number refers to the number of par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E), and the second number refers to the number of parents in the control group (C), respectively.  
<sup>b</sup>“Yes & no” refers to children both at school age and at younger ages.

여부를 알 수 없는 한 편을 제외한 40편 중 18편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9편은 취학 자녀, 즉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외에 3편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와 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모두 포함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육인원수는 5명에서부터 74명까지로 다양하였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41편의 연구 중 15명 이하를 교육한 연구가 19편, 16명 이상을 교육한 연구가 22편이었으며 평균은 22.02명이었다.

교육대상은 메타분석에 포함된 총 41편의 연구 중 어머니만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연구가 34편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7편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참가하였거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고만 하고 부모의 성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통제집단을 사용한 연구가 없어 본 메타분석에는 한 편도 포함되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회기 수는 5회기에서 15회기 사이에 분포하였다. 프로그램의 회기 수가 일정하지 않은 2편을 제외한 39편 중 8회기 이하가 20편, 9회기 이상이 19편이었다. 평균은 8.97회기였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총 41편의 연구 중 12편은 특수한 성격의 부모(장애아 부모, 미숙아의 부모, 저소득 부모, 이혼한 부모, 결혼이민자 어머니, 학교부적응 아동의 부모 등)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Table 1>을 토대로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를 변수군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29개 효과크기는 모두 양의 값으로 .04에서 3.29 사이에 분포하였다. 둘째,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한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30개 효과크기의 절댓값은 .05에서 3.47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양의 값이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자녀의 변화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10개 효과크기는 모두 양의 값이었으며 .08에서 2.15 사이에 분포하였다.

## 2.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 중 양육태도(양육유형), 양육행동, 의사소통, 상호작용 행동과 같은 부모의 행동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총 29편의 연구의 평균 효과크기는 <Table 2>와 같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는 참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부모의 행동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d = .89, 95\% CI = .77 \sim 1.02$ ). 효과크기  $d$  값은 ‘실험집단의 평균치가 통제집단의 평균치에 비해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는가의 크기를 표준편차라는 공통의 척도로 변환시켜 놓은 것’(오성삼, 2002: 72-73)으로,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는 .89로서 .80보다 크므로 큰 효과크기(large effect size)에 해당한다(Cohen, 1992). 한편 이러한 결과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했을 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평균적인 부모는 참가하지 않은 부모의 81%보다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고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출판편의를 검토하기 위해서 깔대기 그림을 그린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이 그림에서 X축의 우측으로 갈수록 효과크기인 Hedges'  $d$  값이 커지며 Y축의 상단으로 갈수록 표준편차가 커진다. 즉 Y축 상단이 표본크기가 작은 경우이다. <Figure 1>에서는 좌측 상단(프로그램 참가자의 수가 적고 효과크기도 작은 경우)과 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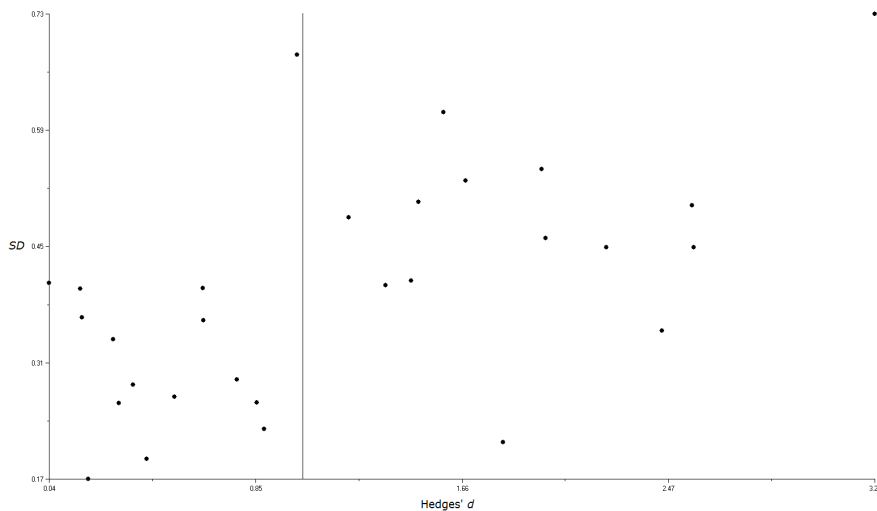


Figure 1. Parents' Behavioral Changes: Funnel Plot

Table 2. Summary Statistics for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on Parents' Behavioral Changes in Meta-Analysis

Category	k	d	% <sup>a</sup>	95% CI		Q <sub>w</sub>	Q <sub>b</sub>
				Lower limit	Upper limit		
Overall	29	.89	81	.77	1.02	149.19***	
School-age children <sup>b</sup>							
No	9	1.06	86	.83	1.29	58.68***	9.70**
Yes	16	.66	75	.48	.83	55.73***	
Number of participants							
15 or fewer	14	1.14	87	.86	1.41	46.95***	4.78*
16 or more	15	.82	79	.67	.97	97.47***	
Mothers only							
No (both parents)	6	.63	74	.36	.90	22.68***	9.96**
Yes	23	1.03	85	.88	1.19	116.55***	
Number of sessions							
8 or fewer	15	.62	73	.45	.79	56.68***	29.41***
9 or more	14	1.29	90	1.09	1.50	63.10***	
Group characteristics							
General	21	.89	81	.74	1.03	113.09***	.04
Special	8	0.92	82	.61	1.22	36.06***	

Notes. k = number of effect sizes; CI = confidence interval; Q<sub>w</sub> = test of within-category homogeneity; Q<sub>b</sub> = test of between-category homogeneity

<sup>a</sup> Percentage of control group that fell below the averag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nt.

<sup>b</sup> Studies that included parents with children both at school age and at younger ages or studies that did not identify children's ages were excluded.

\*p < .05, \*\*p < .01, \*\*\*p < .001

하단(프로그램 참가자의 수가 많고 효과크기도 큰 경우)에 빈 공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판편의라기 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수가 적은 연구는 상대적으로 효과크기가 큰 편이고 참가자수가 많은 연구는 효과크기가 작은 편이라는 실제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Orwin의 안전계수는 100.7이었는데, 이는 현재의 평균 효과크기를 .20으로 낮추려면 100편 이상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29편임을 감안할 때 출판편의로 인해 분석에서 누락된 연구가 100편 이상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부모의 행동적 변화의 평균 효과크기는 출판편의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가 전반적으로 유사한지를 검증하는 범주내 동질성 검사(homogeneity Q<sub>w</sub>)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동질성 가정이 기각되어 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는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sub>w</sub> = 149.19, p < .001). 연구별로 효과크기가 동질적이지 않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개별 연구

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특징, 즉 자녀취학 여부, 교육인원수, 교육대상, 프로그램 회기 수, 집단특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평균 효과크기를 별도로 계산하고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취학 여부는 미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비교할 때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Q<sub>b</sub> = 9.70, p < .01). 미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d = 1.06)가 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d = .66)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효과의 강도가 컸다. 교육인원수를 조절변수로 하여 15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16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Q<sub>b</sub> = 4.78, p < .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인원수가 15명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d = 1.14)가 16명 이상인 경우(d = .82)

인 경우보다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효과의 강도가 컸다.

교육대상은 어머니만을 교육한 경우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교육한 경우를 비교할 때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Qb = 9.96, p < .01$ ). 즉, 어머니만을 교육한 경우( $d = 1.03$ )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교육한 경우( $d = .63$ )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효과의 강도가 컸다. 프로그램의 회기 수는 8회기 이하인 경우와 9회기 이상인 경우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Qb = 29.41, p < .001$ ). 프로그램이 9회기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d = 1.29$ )가 8회기 이하인 경우( $d = .62$ )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효과의 강도가 더 컸다. 그러나 일반 부모집단과 특수 부모집단의 집단특성별 평균 효과 크기에서는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15명 이하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9회기 이상 비교적 장기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녀와의 상호작용, 양육행동과 같이 부모의 행동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린 미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었음도 알 수 있다.

### 3.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 중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부모유능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총 30편의 연구에서 계산한 효과크기를 통합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는 참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부모의

Table 3. Summary Statistics for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on Parents' Internal Changes in Meta-Analysis

Category	k	d	% <sup>a</sup>	95% CI		Qw	Qb
				Lower limit	Upper limit		
Overall	30	.61	73	.49	.72	94.79***	
School-age children <sup>b</sup>							
No	14	.57	72	.41	.73	32.39**	.11
Yes	15	.61	73	.43	.79	53.70***	
Number of participants							
15 or fewer	13	1.09	86	.82	1.36	32.35**	18.74***
16 or more	17	.48	68	.35	.62	43.69***	
Mothers only							
No (both parents)	5	.36	64	.04	.68	21.70***	6.07*
Yes	25	.68	75	.55	.82	67.02***	
Number of sessions							
8 or fewer	16	.54	71	.37	.71	41.92***	0.67
9 or more	12	.64	74	.45	.83	48.42***	
Group characteristics							
General	19	.53	70	.39	.67	51.20***	5.50*
Special	11	.82	79	.58	1.07	38.08***	

Notes. k = number of effect sizes; CI = confidence interval; Qw = test of within-category homogeneity; Qb = test of between-category homogeneity

<sup>a</sup> Percentage of control group that fell below the averag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nt.

<sup>b</sup> Studies that included parents with children both at school age and at younger ages or studies that did not identify children's ages were excluded.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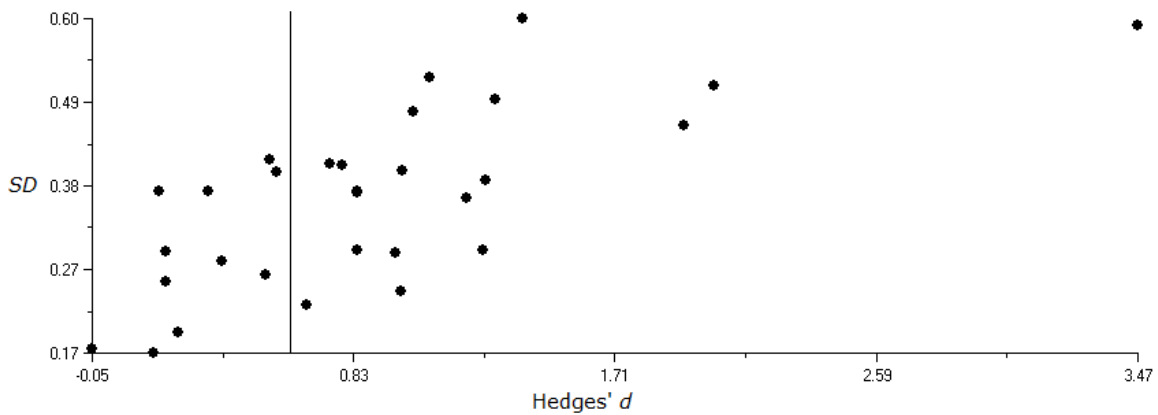


Figure 2. Parents' Internal Changes: Funnel Plot

내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d = .61$ , 95% CI = .49 ~ .72). 효과크기  $d$  값은 .61으로서 중간 효과크기의 기준인 .5보다는 컸고 큰 효과크기의 기준인 .8 보다는 작았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했을 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평균적인 부모는 참가하지 않은 부모의 73%보다 내적 변화를 측정할 사후검사 점수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출판편의를 검토하기 위해서 깔대기 그림을 그린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1>과 유사하게 <Figure 2>에서도 좌측 상단(프로그램 참가자의 수가 적고 효과크기도 작은 경우)과 우측 하단(프로그램 참가자의 수가 많고 효과크기도 큰 경우)에 빈 공간이 나타났다. 역시 이러한 결과는 출판편의라기 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수가 적은 연구는 상대적으로 효과크기가 큰 편이고 참가자수가 많은 연구는 효과크기가 작은 편이라는 연구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Orwin의 안전계수는 61.0로서 평균 효과크기를 .20으로 낮추려면 61편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30편이므로 분석에서 누락된 연구가 61편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부모의 내적 변화의 평균 효과크기는 신뢰할 만 하다고 사료된다.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가 전반적으로 유사한지를 검증하는 범주 내 동질성 검사(homogeneity  $Q_w$ )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동질성 가정이 기각되어 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는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_w = 94.79$ ,  $p < .001$ ). 연구별로 효과크기가 동질적이지 않은 것은 나타났으므로 개별 연구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특성 중 자녀취학 여부, 교육인원수, 교육대상, 프로그램 회기 수, 집단특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평균 효과크기를 별도로 계산한 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인원수는 15명 이하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의 평균 효과크기와 16명 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Q_b = 18.74$ ,  $p < .0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명 이하를 교육한 프로그램( $d = 1.09$ )이 16명 이상을 교육한 프로그램( $d = .48$ )보다 부모의 내적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상은 어머니만을 교육한 경우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교육한 경우를 비교할 때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Q_b = 6.07$ ,  $p < .05$ ). 어머니만을 교육한 경우( $d = .68$ )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교육한 경우( $d = .36$ )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효과의 강도가 컸다.

집단특성별로는 일반적인 부모집단을 교육한 경우와 특수한 상황의 부모집단(장애아 부모, 미숙아의 부모, 저소득 부모, 이혼한 부모, 결혼이민자 어머니 등)을 교육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Q_b = 5.50$ ,  $p < .05$ ). 특수집단의 부모를 교육한 경우( $d = .82$ )가 일반집단을 교육한 경우( $d = .53$ )에 비해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효과의 강도가 컸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자녀취학여부와 프로그램의 회기 수별 평균 효과크기에서는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15명 이하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부모유능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 부모의 내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4. 자녀의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 중 문제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건강,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자아개념, 학습기술 등 자녀의 변화에 대해

Table 4. Summary Statistics for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on Children's Changes in Meta-Analysis

Category	k	d	% <sup>a</sup>	95% CI		Qw	Qb
				Lower limit	Upper limit		
Overall	10	.88	81	.64	1.11	36.62***	
School-age children <sup>b</sup>							
No	7	1.00	84	.71	1.29	28.11***	4.52*
Yes	3	.47	68	-.47	1.41	3.99	
Number of participants							
15 or fewer	5	.80	79	.17	1.43	11.92*	.15
16 or more	5	.90	82	.57	1.23	24.55***	
Number of sessions							
8 or fewer	6	.57	72	.23	.91	8.23	23.97***
9 or more	3	1.71	96	.89	2.53	.38	
Group characteristics							
General	7	.96	83	.68	1.23	27.81***	3.47
Special	3	.39	65	-.81	1.60	5.34	

Notes. k = number of effect sizes; CI = confidence interval; Qw = test of within-category homogeneity; Qb = test of between-category homogeneity

<sup>a</sup> Percentage of control group that fell below the averag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nt.

<sup>b</sup> Studies that included parents with children both at school age and at younger ages or studies that did not identify children's ages were excluded.

\* $p < .05$ , \*\*\* $p < .00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총 10편의 연구에서 계산한 효과크기를 통합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는 참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자녀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d = .88$ , 95% CI = .64 ~ 1.11). 효과크기  $d$  값은 .88로서 큰 효과크기(large effect size)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했을 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평균적인 부모의 자녀는 참가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의 81%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긍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자녀의 변화에 대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가 전반적으로 유사한지를 검증하는 범주 내 동질성 검사(homogeneity Qw) 결과 <Table 4>에서와 같이 동질성 가정이 기각되어 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는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w = 36.62$ ,  $p < .001$ ). 연구별로 효과크기가 동질적이지 않은 것은 나타났으므로 개별 연구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특성 중 자녀취학 여부, 교육인원수, 프로그램 회기 수, 집단특성별로 평균 효과크기를 별도로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10편은 모두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교육대상은 조절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미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비교할 때 자녀의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Qb = 4.52$ ,  $p < .05$ ). 미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 $d = 1.00$ )가 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 $d = .47$ )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가 자녀의 변화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회기 수가 8회기 이하인 경우와 9회기 이상인 경우를 비교할 때 자녀의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Qb = 23.97$ ,  $p < .0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9회기 이상인 경우( $d = 1.71$ )가 8회기 이하로 구성된 경우( $d = .57$ )보다 자녀의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 9회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여러 회기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8회기 이하로 단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비해 자녀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외에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고려한 교육인원수별 및 집단특성별 평균 효과크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녀의 변화에 대한 Hedges'  $d$  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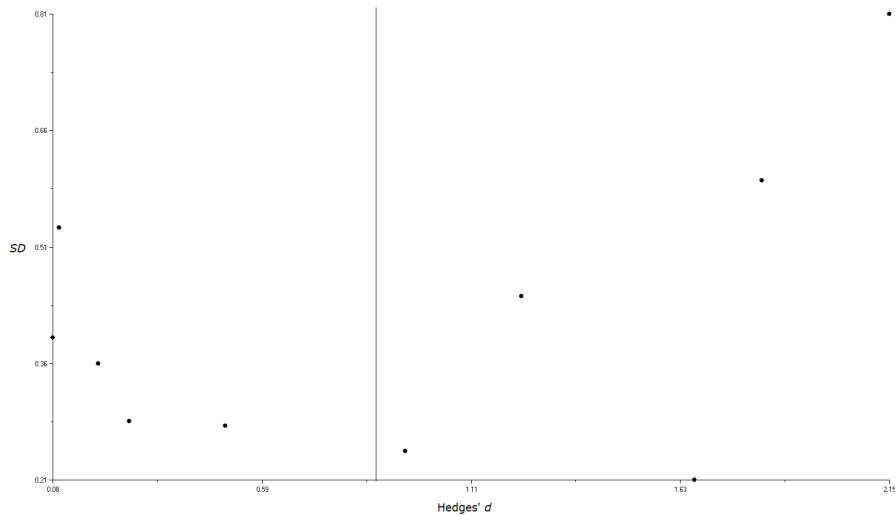


Figure 3. Children's Changes: Funnel Plot

깔대기 그림을 그린 결과는 <Figure 3>와 같다. 또한 Orwin의 안전계수는 33.9로서 평균 효과크기를 .20으로 낮추려면 약 34편의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10편뿐이라 출판편의를 엄밀하게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수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의 연구가 출판편의에 의해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녀의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는 출판편의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다수의 개별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이었으며, 두 번째 연구문제는 '부모의 행동적 변화, 부모의 내적 변화, 자녀의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는 프로그램의 특성(자녀취학 여부, 교육인원수, 교육대상, 회기 수, 집단특성)별로 차이가 있는가?'이었다. 메타분석의 대상은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는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

과 비교할 때 부모의 행동적 변화(양육태도, 의사소통 등), 부모의 내적 변화(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등), 자녀의 변화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자녀의 변화에 대한 효과의 강도는 크며(large effect size), 부모의 내적 변화의 경우에도 중간보다 큰 효과크기이다.

이러한 평균 효과크기를 석·박사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Lee and Lee(2002)의 연구와 Cho(2012)의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통합한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 $d = .89$ )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의 변화에 대해 Lee and Lee(2002)가 보고한 평균 효과크기( $d = .97$ )보다 다소 작으며, Cho(2012)가 보고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에 대한 효과크기( $d = 1.56$ )와 부모자녀관계 및 의사소통의 변화에 대한 효과크기( $d = 1.33$ )보다도 작다. 본 연구의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 $d = .61$ ) 역시 Lee and Lee(2002)가 보고한 평균 효과크기( $d = .73$ )와 Cho(2012)가 보고한 효과크기( $d = .73$ )보다 다소 작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통합한 자녀의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 $d = .88$ )는 Lee and Lee(2002)가 보고한 자녀의 변화 및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 $d = .62$ )나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의 평균 효과크기( $d = .53$ )보다 크다. 최근 Cho(2012)가 보고한 평균 효과크기( $d = .99$ )와는 유사하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의 결과를 통합한 평균 효과크기와 선행연구에서 석·박사 학위논문의 결과를 통합한 평균 효과크기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향후 학술지 연구와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사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평균 효과크기에 차이가 나타난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의 행동적 변화 및 내적 변화, 자녀의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있어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는 동질적이지 않다.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의 행동적 변화 및 자녀의 변화에 더 효과적이나,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교육인원수가 15명 이하의 소집단인 프로그램이 16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내적 변화에 더 효과적이나, 자녀의 변화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내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더 효과적이다.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성별이 동질적인 경우가 혼성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보다 부모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이 9회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회기 수가 많은 프로그램이 8회기 이하인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자녀의 변화에 더 효과적이나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회기 수가 많은 프로그램이 부모의 행동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행동의 변화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로직모델(United Way of America, 1996)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로직모델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기술, 지식, 태도에서의 변화는 단기효과로, 행동에서의 변화는 중기효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행동적 변화를 끌어내는데 회기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로직모델 등 프로그램 평가 분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정을 지지한다.

장애아 또는 미숙아의 부모, 저소득 부모, 이혼한 부모, 결혼이민자 어머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의 내적 변화에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적 개입이나 특수집단에 대한 프로그램이 예방적 성격의 개입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서구의 메타분석(Shadish & Baldwin, 200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자녀의 변화에 대해서는 집단특성 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 2.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제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행동적,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으로

부모역할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있어 부모교육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년-2015년)에서 중점 추진과제 중 한 가지로 '부모역할 지원'을 선정하고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위기 아동·청소년의 부모교육 등 다양한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한 부모역할 지원이라는 이러한 가족정책의 방향성의 적절성을 뒷받침하며, 부모교육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위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에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토대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 및 자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본 메타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부모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미취학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취학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보다 부모의 행동적 측면과 자녀의 변화에서 더 효과적이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유형, 자녀와의 의사소통 등 상호작용 방식은 자녀가 영유아기일 때 형성되므로 이 시기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양육기술 습득 및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15명 이하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16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보다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부모가 마음을 열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다른 부모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프로그램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셋째, 9회기 이상으로 회기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회기 수가 적은 프로그램보다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자녀의 변화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의사소통 등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방식이나 양육행동과 같은 부모의 행동 차원에서 변화,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변화를 통한 자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여러 회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결석이나 중도탈락 없이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부



모들이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율적인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행동적 변화나 부모의 변화를 통한 자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교육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참석한 부모들 간의 온라인, 오프라인의 자조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콜센터, 뉴스레터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지속적으로 부모들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넷째, 장애아 부모, 저소득층 부모, 이혼한 부모, 다문화가족의 부모 등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고유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효과 크기가 컸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최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아 부모, 저소득층 부모, 한부모가족의 부모 등 특정한 집단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면 투자에 비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기능 강화를 제안한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예방적 성격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기에는 예산이나 전문인력의 수 등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실화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전달체계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확보되었고 보다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요건을 파악한 만큼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적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부모역할의 지원과 부모의 역량강화라는 가족정책의 세부과제와,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해결이라는 청소년정책의 세부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합하는 메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 및 자녀의 변화에 효과적인임을 밝힘으로써 부모교육의 정책적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고려한다면 메타분석 기법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더욱 발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취학 여부, 교육인원수, 교육대

상, 프로그램 회기 수, 집단특성을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분석하였으나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특성 또는 개별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 강사의 수, 실시장소, 회기 당 소요시간, 아동의 특성과 같은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연구의 발표 시기, 발표형태 등 연구의 특성을 메타분석에서 조절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PT(Active Parenting Today), STEP(System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등과 같이 해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시했는지 혹은 연구자가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는지 등을 조절변수로 분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원수를 15명 이하와 16명 이상으로, 프로그램 회기 수를 8회기 이하와 9회기 이상으로 분류함으로써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특성은 찾아낼 수 있었지만 최적의 인원수와 회기 수가 무엇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특성을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절변수를 이분변수로 구분함에 있어 다양한 분류방법을 시도해 본다면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행동적 변화와 내적 변화로 나누어 분석한 부모의 변화와는 달리 자녀의 변화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변화의 내용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변화를 통해 자녀의 변화에까지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더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의 행동적 변화와 내적 변화 중 어떤 측면에 더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표시한 문헌은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임

관계부처 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가족행복 더하기.

박석희(2008). 근거중심정책이론(EBP)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고령화정책의 한계. **정부와 정책**, 1(1), 55-82.

신용주·김혜수(2011). **대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오성삼(2009).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건국대학교 출판부.

이복실(2011). 청소년 정책과 가족정책의 통합적 추진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17.

이순형·민하영·권혜진·정윤주·한유진·최윤경·권기남(2010).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Barlow, J., Coren, E., & Stewart-Brown(2002). Meta-analy-

- sis of the effectiveness of parenting programmes in improving maternal psychological health.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52, 223-233.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West Sussex, United Kingdom.
- Brock, G. W., Oertwein, M., & Coufal, J. D.(1993). Parent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M. E. Arcus, J. D. Schvaneveldt, & J. J. Moss (Eds.),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Vol. 2, pp. 87-114). Newbury Park, CA: Sage.
- Carter, N.(1996). *See how we grow: A report on the status of parenting education in the U.S.* Philadelphia: Pew Charitable Trusts.
- Cedar, B., & Levant, R. F.(1990).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 373-384.
- Chin, Y., Lee, N. Y., & Jeong, Y.-J.(2011). Acculturation of immigrant parents and parent-adolescent child relationships in asi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2), 19-34.
- Cho, K. R.(2012).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 Cho, S.-E.(2004). A meta-analysis on the efficacy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handicapped children in Korea.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5(1), 415-429.
- \*Cho, Y.-S., & Lee, Y.-J.(2011).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korean-style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sensitivity training. *Family and Culture*, 23(4), 1-40.
- \*Choe, H. S.(2010). The development of a parenting training program for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from Southeast Asia(1): A case-study of Filipino.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48(4), 57-70.
- Cohen, J.(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 155-159.
- Coie, J. D., Watt, N. F., West, S. G., Hawkins, J. D., Asarnow, J. R., Markman, H. J., Ramey, S. L., Shure, M. B., & Long, B.(1993). The science of preven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some directions for a national research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48, 1013-1022.
- Choi, Y.-H.(2009). A meta-analysis of the effect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on parental rea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Gyeonggi-do.
- \*Chun, H. Y.(2009). The effects of a parental developmental bibliotherapy program for their young children's sexual abuse self-protectio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47(9), 37-53.
- \*Han, M.-K., Han, Y.-K., & Jeong, M.-S. (2010).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transactional analysis on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self-concept of childre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1, 235-256.
- Hedges, L. V., & Olkin, I.(1985). *Statistical methods for meta-analysis*. N.Y.: Academic Press.
- Holmes, E. K., Galovan, A. M., Yoshida, K., & Hawkins, A. J.(2010). Meta-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resident fathering programs. Are family life educators interested in fathers? *Family Relations*, 59, 240-252.
- \*Hwang, E. S., & Suh, Y. S.(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of divorced families and the results. *The Journal of Korea Single Parent Family Institute*, 2(2), 23-64.
- \*Hwang, O.(2009).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based on buddhism on mother's self-concept and their reading attitud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9, 1-17.
- \*Jang, M.(2011). Development of online parental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ng adolescent game-over-us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2), 277-297.
- \*Jang, S.-A., & Yu, Y.-O.(2008). The effects of active parenting programs o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rearing stres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7(3), 187-202.
- \*Jeong, G.-Y., & Shin, H.-C.(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3), 603-634.
- \*Jeong, M.-S., Han, M.-K., & Han, Y.-K.(2010).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applied the reality therapy mother's stress-dealing style and child-rearing stres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9(2), 229-243.

- \*Jeong, N.-J., & Lee, Y.-H.(2010).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filial therapy program with art therapy techniques applied.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17(2), 379-413.
- \*Jeong, W.-C., & You, Y.-D.(2011). The effects of TA-based family education for mothers with school maladjustment adolescent children. *Family and Culture*, 23(2), 75-107.
- \*Jo, I.-H., & Sung, S.-Y.(2011). The effec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MBTI for parents on self-esteem and parenting attitude of multicultural families mother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4(1), 73-89.
- Kaminski, J. W., Valle, L. A., Filene, J. H., & Boyle, C. L.(2008). A meta-analysis review of components associated with parent training program effectivenes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567-589.
- \*Kang, S. K.(2011). Effects of parenting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between parent-child, family flexibility, and family rel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4(12), 109-136.
- \*Kim, H.-J.(2007). The effect of parents education with P.E.T. and reality therapy on the changes in parent's attitude of upbring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4(2), 95-121.
- \*Kim, I.(2006). Effect of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in mothers of child with attention problem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4), 491-499.
- \*Kim, J., & Chung, M. J.(2006).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seling-utilized parent education for mothers (CUPE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7), 53-62.
- \*Kim, J. S., & Shin, H. S.(2010). Effects of a discharge education program using on-line community for parents of premature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6(4), 344-351.
- \*Kim, K.-E., & Chung, O. B.(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s creativity improvement.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4(1), 35-63.
- \*Kim, M.-R., Oh, M.-J., Oh, I.-S., & Huh, S.-J.(2008). The effects of the Active Parenting Today on the self encouragement-discouragement and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4), 1665-1683.
- \*Kim, Y.-R., & Kim, Y. T.(2011). Effects of a parent training program using CAI on language behaviors of mothers and the expressive language of thei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6, 127-142.
- \*Kim, Y. O., & Park, S. Y.(2011). The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enhancing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mother and toddler in play cla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1), 71-85.
- \*Koo, M. G., Kim, M. H., & Hwang, S. K.(2009). The effects of the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the knowledge, anxiety, and coping behavior of mothers with young child undergoing cardiac surger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Adult Nursing*, 21(6), 628-638.
- \*Kwon, H., & Kwon, M.(2007). Effect of discharge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o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3(1), 58-65.
- \*Kwon, S.-Y., & Yu, H.-K.(2007).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study skills impro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8(2), 737-750.
- \*Lee, H.-B.(2007). The effect of psychodynamical parents education program on mental health of the parents and parental attitude. *Korean Journal of Welfare Counseling*, 2(2), 55-68.
- \*Lee, H. R., Ryoo, H. J., & Kim, J. H.(2007). The effects of active parent education training program o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nd communicat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2), 533-547.
- \*Lee, J. M., Oh, S. J., Kim, K. A., Lee, E. J., Lee, J. Y., Hwang, M. S., et al.(2010). Effects of a home-based discharge program for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on oxygen therapy at home.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6(2), 144-155.
- \*Lee, J. S.(2011). The effects of Enneagram parental education programs on attitude of child-rearing.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8(1), 9-36.
- \*Lee, J., & Kim, C.(2010). The comparison with effectiveness of parents education program and teachers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The Journal of Special*

-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1(1), 253-276.
- \*Lee, S., & Park, J.-S. (2010). A study on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with school aged childre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48(1), 1-14.
- \*Lee, S.-M., & Kim, S.-H.(2009). The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christian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3), 723-746.
- Lee, S.-Y., & Lee, Y.-J.(2002).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through the meta-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3), 637-653.
- \*Lee, S.-B., & Jeoung, M.-S.(2006).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MBTI for mothers' on their parenting self-efficacy,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44(10), 121-132.
- Lundahl, B. W., Nimer, J., & Parsons, B.(2006). Preventing child abuse: A meta-analysis of parent training program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6, 251-262.
- Lundahl, B., Risser, H. J., & Lovejoy, C.(2006). A meta-analysis of parent training: Moderators and follow-up effec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86-104.
- \*Park, H.-M.(2006). Web-based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influence on mother's nursing attitud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6(2), 157-178.
- \*Park, J.-O.(2006).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STEP on parenting stress and infant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1), 37-45.
- \*Park, S. H.(2007). The effects of the biblio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parents education on th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4(2), 1-31.
- Pillemer, D. B., & Light, R. J.(1980). *Synthesizing outcomes: How to use research evidence from many studi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50, 134-148.
- Reyno, S. M., & McGrath, P. J.(2006). Predicting of parent training efficacy for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99-111.
- Rosenberg, M. S., Adams, D. C., & Gurevitch, J.(2000). *Meta Win: Statistical software for meta-analysis* (Version 2.0). Sunderland, MA: Sinauer Associates.
- \*Ryu, K. H.(2009). The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internet use guidanc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8), 53-52.
- Shadish, W. R., & Baldwin, S. A.(2003). Meta-analysis of MFT intervention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 547-570.
- \*Shin, S. H., & Won, J. S.(2009). The effects of a self-esteem enhancement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with childre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4), 492-500.
- \*Son, S.-H., Bae, G.-T., & Lee, Y.-H.(2007). The effects of transactional-analysis parent education program on the enhancement in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in the family functioning. *Transactional Analysis & Psychosocial Therapy*, 4(1), 1-17.
- Song, H.-R., Park, J.-Y., Lee, W., Sung, M., Seo, J., & Chin, M.(2009). A pilot study for developing parenting-aid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6), 91-108.
- \*Suh, E.-J., & Lee, H.-R.(2011). The effect of attachment improvement parent-education group counseling on mothers' adult attachment, self-esteem and parent-child interaction.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8(2), 101-123.
- Sung, M., & Song, H.(2008). The family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from the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Contents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2(4), 1-14.
- United Way of America.(1996). *Measuring program outcomes: A practical approach*. Alexandria, VA: United Way of America.
- Weissberg, R. P., Kumpfer, K. L., & Seligman, M. E. P.(2003). Prevention that works for children and youth. *American Psychologist*, 58, 425-432.
- \*Yang, M.-J., Nahm, E.-Y., Lee, S.-L., Lee, J.-Y., & Heo, J.-Y.(2010).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of a parent training program for low income familie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8(1), 113-141.
- Yang, O.-K., & Kim, Y.-S.(2004).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silient parenting program. *Korean Jour-*

*nal of Family Social Work, 14, 225-261.*

- 접수 일 : 2013년 01월 15일
- 심사 일 : 2013년 03월 05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05일